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정기총회 제1회기 의안집 (1)



지난 10월 4일(수),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정기총회 제1회기가 바티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의안집」(*Instrumentum Laboris*)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안집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어떤 이야기가 오가며 다뤄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의안집은 서문과 함께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문에서는 지금까지 시노드가 진행되어 온 과정을 소개하고, 의안집의 성격과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본론인 “제1부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의 통합된 체험”에서는 그동안 모여진 시노드 여정의 열매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부 1.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의 특징적인 표징들”에서는 시노드적 교회와 관련하여 다음의 7가지 내용을 제시합니다.

- ① 시노드 정신 실현의 기초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세례성사로 갖는 동등한 품위다.
- ② 교회의 구조, 제도, 과정들은 더욱 시노드적인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③ 경청은 시노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체험이며, 그 대상은 하느님 말씀, 사건들, 사람들이고, 궁극적 대상은 성령이다. 교회는 모든 구성원뿐만 아니라, 타 종교 그리고 현대 사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④ 교회는 만남과 대화를 통해 모두를 환대하고 포용해야 하며, 이때 만나게 되는 지역 교회의 다양성은 일치의 장애가 아니라 풍요로움의 원천이 된다.
- ⑤ 환대와 포용이 교회 정체성의 상실을 가져오진 않는데, 그 이유는 진정한 그리스도교적 포용이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가능하며 그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진리가 결합된 방식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사는 교회’(에페 4,15-16 참조)다.
- ⑥ 사랑 안에서 진리를 살아가려고 할 때, 긴장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교회가 분열이나 양극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불완전함과 불안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느님께서 보여주는 길에 개방되어야 한다.
- ⑦ 교회는 전례, 특히 성체성사로부터 힘을 얻는다.

이어 “제1부 2.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향하여 나아갈 방법: 성령 안에서 대화하기”에서는 그동안 이뤄진 ‘성령 안에서의 대화’가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말합니다. 이 대화는 하나의 식별 과정으로서 어떤 사안에 대해 성찰한 다음, 그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고 경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일어난 반향을 함께 공유하며, 끝으로 공동 식별을 거쳐 동의에 도달한 다음, 감사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하느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기도, 곧 성령께 귀 기울이는 가운데 진행됩니다. 의안집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성령 안에서의 대화’를 위하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에게 적절한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